



[라이프]  
편의점 한류 CU  
업계 최초  
말레이시아 진출

L1

[바이오]  
인보사케이주  
부작용 심각  
암 발생 보고 32건



Life

L2

IT 보조기구 지원… 교육으로 일자리를…

# 소외이웃에 스며든 IT기술… 따뜻한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⑮ 코스콤

코스콤 임원, 코로나19 극복 도와  
급여 일부 반납해 지역사회에 기부

독거·저소득 노인 대상 봉사활동  
영등포에 방역소독기·소독제 지원

기업 특성 살려 ‘IT 희망나눔’ 활동  
11년간 장애인에 IT 보조기구 지원  
경력단절·이주 여성 IT 취업 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코스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에 나섰다.

코스콤의 슬로건인 ‘IT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나눔실천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인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여러 정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하자는 의미다.

## ◆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역사회 나눔

정지석 코스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서울 영등포구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됐다. 지역 상인들에게 쌀과 식용유, 세탁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 7월에는 영등포구청과 함께 영등포구 내 독거·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취약계층 어르신 7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속 소상공인을 함께 돋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스콤은 영등포구 18개 동의 지역식당을 통해 한 달간 릴레이 식사대접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자매결연 마을인 춘천 명월 마을과 대부도 흘곶마을의 특산물인 감자와 포도를 구매해 영등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했다.

앞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에는 영등포구에 방역 소독기와 소독제를 지원하는 선제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원으로 영등포구는 지역 내 영유아, 노숙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50개소에 방역 소독기를 배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활동도 이어졌다. 코스콤은 부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



① 지난 7월 정지석 코스콤 사장이 영등포구청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 700여명에게 배식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② 지난 5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왼쪽에서 5번째) 정지석 코스콤 사장이 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구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③ 지난 6월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왼쪽부터) 이주원 코스콤 사회공헌팀장, 김성현 코스콤 대외 협력부서장, 엄재욱 코스콤 전무이사, 이형삼 영등포구청 기획재정국장, 강민아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임승규 영등포구청 일자리 창출팀장, 방윤옥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이 참석해 교육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을 겪지 않도록 태블릿PC 약 70대를 부산 시동구자원봉사센터 등에 지원했다.

또 사회적으로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내 1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300여 곳에 생필품 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작은 힘이지만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소독기와 소독제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본시장 IT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또한 코로나19 리스크에서 자본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 IT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도…

코스콤은 국내 자본시장 IT 인프라 기업 특성을 살려 ‘IT 희망나눔’이란 대표 사회 공헌사업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 IT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IT 이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코스콤은 11년간 지속해서 중증장애인 IT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로 인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IT 보조기구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지난 5월에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

고, 복지관은 이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애구 마우스·특수키보드·거치대 등 맞춤형 IT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코스콤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략 800여명의 장애인들이 개인별 맞춤 IT 보조기기를 지원받았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콤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IT 취업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후원하고 있다. IT 취업프로그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진행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 현장에서 IT 융합 강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난 6월에는 해당 IT 취업프로그램을 수료한 영등포구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원 재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열린 코딩 강사 교육과정은 최근 방과 후 교육과 진로 체험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로봇 코딩 강사 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 20명은 모두 교육기관에 취업했고, 이중 60%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코스콤은 이주여성들에게 IT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 해소와 이들의 취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IT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출판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어 번역 전문출판디자이너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정의 취업교육과 작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협동 조합지원센터(다온)’를 설립했다.

엄재욱 코스콤 전무이사는 “해당 지원센터를 밀거울로 다문화 어머니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